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조현중

신창동 유적, 사적지정 20년의回顧

광주 신창동 유적은 지난 1992년 9월 9일 국가사적(史蹟 375)으로 지정되었다. 극락 강변 한 마을에서 무더기로 쏟아진 발췌사 결과였다. 2000년 전의 타임캡슐이라 칭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목기, 칠기와 같은 유물들은 당대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를 반복하면서 연일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갈 즈음 도로의 중심에 놓인 유적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그리고 마침내 도로가 우회로 바뀌면서 유적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그 뒤 조사는 진행되었고 지금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청아한 선율을 내는 현악기와 청동방울, 11개의 비취색 푸른 구슬, 검은 광택이 도드라진 크고 작은 칠기, 구를 위를 너울거리는 놋다리 수레바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저녁의 배틀, 추운 겨울 엄마의 파스칼이 담긴 딸의 가족 신발, 천 번의 손 비빔으로 불을 지핀 발화구(發火具), 주린 배를 채웠을 흰 쌀밥.. 이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한 선사유물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신창동 유적이 갖는 여러 특징 가운데

서도 타 유적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입지 선정의 탁월함이다. 극락강 수변의 물과 숲이 어우러진 경관과 생태환경이 자연친화적이며 녹지의 중요성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킨다.

신창동 유적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유적이 자연친화적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유적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광주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하며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선사유적 하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관을 배려한 생태적인 복원은 말이나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서둘러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기에 앞서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내야 할 것 인가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어느 정도 타당을 가지고 적당하게 설계된, 그리하여 진행되는 공사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한다. 이러한 유적공원은 이미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및 경관적인 복원에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관점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신창동 유적이 사적 지정 20년째를 맞

는 지금, 유적 중심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날이 깊어질수록 유적이 크게 잠식되고 있다. 철망의 안테나와 광고판은 하늘로 솟았으며, 극락강변에는 도로가 신설되고, 인근에는 물류창고와 고대광산로 들어서더니 마을에선 토기가 수북한 유적위에 새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제 어디에서도 유적의 경관은 아주 볼품이 없게 되어 버렸다. 결국 멋진 유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연천가 진행될 신창동 유적의 복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크고 작은 토목공사를 근절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근의 거대한 물류창고를 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유적은 훨씬 생기를 찾게 될 것이다.

저습지 초입의 매입지는 시멘트 구조물을 비롯한 지상물을 제거하여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터에 이동식 나무오두막과 같은 방문자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지금은 텅 빈 유적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복원의 주체와 기준을 바꾸는 발상이 이제 관여되어야 한다. 사실상 근래의 유적복원은 지역주민과 연구자, 그리고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소통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관 주도의 사고방식은 이미 구시대적이며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

더욱 절실한 것은 특별한 스페셜티를 갖는 유적복원의 기준 제시이다.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한견주의 식의 복원작업은 사냥수렵이며 흥내 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복원이 가져올 폐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 신창동 유적에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은 복원예산의 확보가 아니라 진정한 연구자업을 위한 투자이다.

올해 말, 신창동사적 20년을 기념한 특별전시회 광주박물관에서 준비 중이다. 전시는 그동안 조사된 신창동 유적의 전모를 망라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인 조명과 자리매김을 위한 국제심포지움도 계획되어 있다. '신창동 유적의 도자(稻作)문화'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될 율해의 주제는 '신창동 유적의 목기와 칠기'이다. 이를 전시와 학술행사가 신창동 유적의 관전, 즉 연구자업의 하나로 진행됨은 물론이다.

〈국립 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락하는 '실력 광주' 교육정책 손질하라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수능 1등급 비율이 타시도에 추월을 허용하는 등 7년 연속 최상위라는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우려했던 실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광주는 영역별 1등급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영역은 4.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충남, 제주, 강원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수리가는 4.8%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수리나는 제주와 충남, 서울, 전북 등에 이어 5위였다. 외국어(6.2%)는 서울, 제주, 대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7년간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교하면 1등급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수능성적을 공개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등급 비

율이 7년 연속 최상위권이었다. 중상위권으로 분류된 4등급까지 합할 경우 수리가 45.3%로 1위, 언어와 수리나, 외국어 영역 등은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 판이다.

학생들의 성적 저하는 무엇보다 교육의 안정과 균형보다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교육입이 취입하자마자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야간자율학습 단축, 방학 중 자율학습 제한 등 지나칠 정도로 규제해온 게 사실이다.

우리는 장 교육감에 대해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나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을 장 교육감의 진보이념에 따라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이다. 이제라도 장 교육감은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민주, 호남 확대하고서 대선 승리할 수 있다

광주·전남 광역단체장들이 13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당 최고위원회에서 작성한 민주당의 호남 확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지역 당원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는 물론이고, 지역발전 위한 당 차원의 배려도 없어 민심이 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라고 운을 뗀 뒤 "광주·전남·전북 당원이 3만 명 정도이고, 부산은 1600명인데 반해 당 대표 경선 등에서 인구를 보정해 부산 당원 1명과 호남 당원 20명이 동등한 가치로 인정돼 주고 있다"며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의 지주 역할을 하는 호남 당원들은 의무는 있지만 권리가 없다는 얘기가. 지역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은태 광주시장도 이날 당 지도부에 대해 "정권교체를 이뤘던 지난 1997년

호남지역 투표율이 87%였지만 정권을 빼앗겼던 2007년에 6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선이 박민희의 승부라고 예상할 때 우리의 '키워드'가 될 호남투표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소외감과 함께 민심 이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학벨트의 대전 유치 지지, 18대 국회에서의 잇따른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인해 호남이 상대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방관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공 세력의 부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은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말로만 '덧붙' 운운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은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지역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강은태 광주시장도 이날 당 지도부에 대해 "정권교체를 이뤘던 지난 1997년

중고칼럼



일담

미국 친구들에게서 배우다

플로리다에 머물 때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다.

'카를로스'는 라틴계 미국인으로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대학시절 프로버덴스 선(禪) 센터에서 송산스님께 참선을 배우면서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아집중성, 예불, 반야심경, 관음 기도까지 척척 외우는 것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거기다 토요일마다 보현사 법당에서 미국인들의 참선수행과 다도 모임을 지도한다.

웰빙, 스님도 하기 힘든 참선수행을 한다며 눈 푸른 미국인들이 끔찍하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쿵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해서 말을 건넸다. '카를로스 참선은 쉽지 않다. 거기다 깨달음을 얻기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카를로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다. 정말 쉽다. 네가 어렵다. 나는 쉽다.' 명쾌했다.

'레이'는 백인 친구는 토요일 참선모임부터 일요일 한인법회까지 꼬박 참석하는 독실한 불자다. 당연히 한국말은 까먹는이다. 한국어로 하는 법문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열불소리는 에너지가 좋아 명상을 하면 행복하다고 웃는다.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레이는 중년이 되어서도 육박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종교교서적들을 보다가 불교의 참선수행을 접하고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탁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금은 참선수행이 삶의 에너지처럼 시간 날 때마다 좌복에 앉아 수행을 한다.

'브래클'은 불교법사이면서 합기도를 가

르치는 관장이었다. 미국인들은 무도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나이가 꽤 많았는데도 인기가 높았고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미국인들은 가부좌를 하고 앉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방석을 깔고 앉게 해서 살짝 무릎만 굽힌다거나, 이도저도 안되면 의자에 앉아서 참선을 한다. 앉아 있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앉기 때문인지 의자에 앉든 좌복에 앉든 화두만 성심껏 크게 부딪을 주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브래클은 멋지게 가부좌를 할 줄 알았다.

'수미'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1세대이다. 가족들이 일본식 수행공동체에서 살면서 불교 교리와 명상을 했고 자연스럽게 신학대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30대 젊은이들 중에서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불교운동을 하는 친구이다. 이 친구에게 들은 인상 깊은 내용이 있다. 평생시 난 한국불교는 그 수행력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다. 달라이라마나 티베탄 처럼 불교의 수행력을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 같은 사회적인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다.

내 생각을 들은 그 친구는 잠시 사색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한국불교계가 사회복지나 인권, 평화운동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는 나의 말에 그 친구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스님이 말하는 사회복지나 인권, 평화운동은 2000년 서구의 기독교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며 실천해 왔던 덕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서구의 문명을 해결하지 못해서 동양의 불교에서 해답을 찾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한국불교계로서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수행풍토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한국불교에 남다른 애정이 있던 그 친구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요?

〈백련사 총무스님〉

기고



이용일

서커스+오페라 '서페라'의 감동

세상의 모든 것이 눈부시게 변화하듯 서커스 역시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음을 광양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을 통해 알았다. 서커스의 스텝과 강렬한 기교가 화려한 조명과 의상,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냈다.

'아트서커스'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서커스가 아니라 춤과 음악, 연극과 오페라, 곡예와 스토리가 결합된 총체적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은 서커스와 오페라가 결합된 형태라고 하여 '서페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광양월드 아트서커스는 6개국 최정상급의 서커스팀이 참가하는 서커스페스티벌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초대형 이벤트다. 특히 지방도시에서 개최되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이벤트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엑스포 등 대형 행사에 놀러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서커스를 본 사람들에게는 '큰 만족'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엑스포관객들에게 관람을 권하고 싶다. 우

선 서커스가 열리는 장소인 '빅탑'부터 관객을 압도한다. 메인텐트 2동과 포이어 텐트 2동으로 구성됐는데 메인텐트는 1동당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50m, 높이가 19m에 이르러 포이어 텐트는 1동당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6m, 높이가 9.5m에 이른다.

이곳에서 매일 세계 최고의 서커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한두 작품 밖에 관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광양출신으로서 모처럼 고향을 찾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카르마-운명의 랩소디'와 스페인의 '갈떡'을 관람했다.

'카르마'는 오페라와 서커스를 결합한 서페라를 표방한 작품으로 신의 조상 카르마와 주신인 여인 마고의 사랑을 둘러싼 지하악신의 이야기다. 스페인의 '갈떡'은 신화적 인물과 동물들의 꿈 이야기를 서커스로 연출한 작품이다. 우열을 가릴 수만큼 진화되고 극적 긴장감을 부여하는 작품으로 한동안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다.

서커스가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것은 세계적인 문화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러 개의 서커스 단체가 있었지만 동춘서커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일부 서커스 종주국들은 문화의 변화와 함께 진화를 계속함으로써 광양 아트서커스와 같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광양시에서 아트서커스를 주최한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지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한국 서커스 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광양에는 광양예술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 군내를 순회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적이 있었다. 해방 직후 서울 이남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유일의 예술단체였다. 안타깝게도 여순사건과 6·25사변을 거치면서 광양예술은 산산 조각이 나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광양에는 시립예술단체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백운아트홀의 프로그램이 광양의 예술 활동의 분기점

로 되어 있지만, 연속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아 그 효과가 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하여 전국을 향해 우리 광양에서 하는 서커스를 구경 오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술활동을 보고 자라는 광양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서커스를 관람한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할까를 눈에 그려 보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한다.

한편,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은 오는 8월 12일까지 개최되는데 앞에 소개한 두 작품 이외에도 스텝과 서스펜스의 '디아블로'(미국), 연극과 오페라 무용이 결합된 영국의 '엘리멘탈' 볼춤과 공중극에 가 뛰어낸 슬로바키아의 '아고라 제5원소' 중국 정통극과 데스 드라마 제초가 어우러진 중국의 '서유기' 등 아트서커스가 공연된다.

〈한국음악교육협회 명예회장·전 전남대학교수〉

無等鼓

이준의 감독의 2003년 작 '황산벌'은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과 백제군의 황산벌 전투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다. 백제와 신라 사람들이 지금의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처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만들다보니 독특한 사투리가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백제 진영에서 사용하는 '거시기'와 '머시기'다. 신라의 김유신은 음어(陰語) 같은 거시기의 뜻을 해석하지 못해 당황하지만 백제 사람들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곧 잘 알아듣는다.

영화에서는 신라군이 백제의 턱밑까지 쳐들어오자 의자왕이 계백장군을 불러 "아무래도 나가 거시기 해야겠다"며 졸전을 당부한다. 이에 계백도 부하들에게 "우리의 전략적인 거시기는 머시기 할때까지 감을 거시기 한다"고 말한다. 굳이 말로 딱 부러지지 하지 않더라도 왕으로부터 결사항전의 명을 받은 계백이 부하들에게 "죽을 때까지 감을 벗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 또 받는 말씀 가운데/ 무언지 말문이

막히고 말뿐/ 향음으로 누구나 허물없이 쓰는 말/ 저, 거시기~저, 거시기/ 그것이 있지?"

고창 출신의 미당 서정주는 '저 거시기'라는 시에서 거시거리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사실 거시거리는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라 국어사전에 엄연히 표준어로 등록돼 있는 단어다.

내년에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가 '거시기 머시기'로 결정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측은 다른 지역과 구별시키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면 부하들에게 "우리의 전략적인 거시기는 머시기 할때까지 감을 거시기 한다"고 말한다. 굳이 말로 딱 부러지지 하지 않더라도 왕으로부터 결사항전의 명을 받은 계백이 부하들에게 "죽을 때까지 감을 벗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 또 받는 말씀 가운데/ 무언지 말문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외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3
대외 FAX	222-4918	사진부	2200-697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외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명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정경부		2200-612	2200-551
대외 FAX		222-4918	2200-693
사회부		2200-616	2200-571
대외 FAX		222-4267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